

데상트의 신규 자외선 대책용 의류제품

일본 데상트는 신규 자외선 대책용 의류를 2014년 5월에 출시하였다. 「Le cop Spotif」는 UPF 50+ 시리즈의 여성용 골프의류를, 「BabolaT」는 자외선을 차폐하고, 피부면을 끈적임 없이 유지하는 테니스용 라이트 재킷을 판매하고 있다.

「Le cop Spotif」는 화이트(white) 및 라임 옐로우(lime yellow) 등의 단색계 색상이면서 얇은 원단으로 이루어진 자외선차단 의류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자외선차폐지수UPF(Ultraviolet Protection Factor)가 UPF 50+으로 최고 수준을 지닌다. 셔츠, 블루종(blouson), 팬츠 등의 26종, 암커버 및 모자 등의 액세서리 18종, 총 44종을 전개하고 있다. 반소매 골프셔츠는 7,900엔, 암커버는 2,500엔으로 판매하고 있다.

「BabolaT」의 라이트 재킷(1종)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그을림의 경감뿐만 아니라 적외선반사율을 높여 냉감효과를 부여하였다. 또한 원단의 피부접촉면은 발수·건조층, 표면은 확산·흡수층으로 구성되어 땀에 의한 끈적임 발생이 경감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가격은 1만 1000엔이다.



< 「Le cop Spotif(Golf)」 홈페이지 홍보용 이미지 >



ライトジャケット
BabolaT

< 「BabolaT」의 라이트 재킷 이미지 >

♣ 섬유뉴스(2014. 5. 9)